전법 일기

부모·자녀 함께 한 '홍사바오' 가족을 불교에 스며들게 하다

동림소년소녀합창단을 맡은지 약 3년쯤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불교합창단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사찰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갖도록 하겠다'는 내 발원의 위기가 찾아왔다. 바로 코로나19(COVID-19)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유행한 것이다.

코로나19는 내가 지휘하고 있던 사찰의 합창단 운영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심지어 팬데믹 사태가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어졌던 탓에 동림소년소녀합창단에 있던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어버렸고, 자연스럽게 합창단에서 졸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당시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합창단의 분위기를 다시 바꿀 수 있도록 뮤직비디오 촬영, 합창 녹음 등 활기가 돌 수 있는 활동뿐이었다.

다행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중지되었던 행사들이 재개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서도 내 귀를 쫑긋 세우게 한 행사가 있었다. 바로 2022년도 찬불가 열창대회였다. 나는 합창단의 분위기를 바꾸고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기 위해 이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하였다. 비록 인기상에 머물렀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찬불가를 찾아보고, 안무와 의상도 기존의 정적인 합창단 스타일이 아닌 걸그룹 컨셉으로 새롭게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값진 경험을 하였다.

하지만 이때 인기상에 머물렀던 것이 아쉬워 나는 아이들과 함께 이듬해에도 찬불가 열창대회에 도전하였다.

홍법사는 매주 일요일에 어린이 법회를 진행하는데 사찰의 위치상 아이들을 픽업해야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님들도 함께 절에 오게 되었다. 이때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합창단이 '세향합창단'이다.

나는 이번 찬불가 열창대회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바로 동림소년소녀합창단과 아이들의 자모·자부 합창단인 세향합창단과의 가족 무대였다. 팀의 이름은 홍법사의 보배라는 뜻인 홍사바오.

그렇게 '홍사바오'는 가을에 열리는 2023 찬불가 열창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무더웠던 여름을 시작으로 매주 2~3번씩 모여 연습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어쩌면 너무도 특별했던 구성이면서 나도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염천의 여름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구슬땀을 흘렸기 때문일까. 2023년 가을, 우리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받듯이 홍법사의 '홍사바오'는 찬불가 열창대회에서 대상을 거머쥐게 됐다.

내가 아이들, 부모님과 함께 찬불가 열창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나의 발원이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주말마다 사찰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즐겁게 율동하며 찬불가를 부르는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불교가 스며드는 모습 그 자체였다.



이지윤
홍법사 동림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불자여, 지금 바로 기후정의를 실천하자

특별기고



천도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9월, 세계 곳곳에서 기후정의를 위해 행진한다. 세계 곳곳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화석연료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집회와 행진과 파업 등을 벌여 왔다.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하고 기후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며 모두가 함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자는 함성이다.

이 시대에 부처님께서 출현하신다면 응당 기후약자들이 사는 곳에 나투시지 않겠는가? 생명의 존엄과 만물의 평등함을 바탕으로 한 불교인이라면 앞장서서 소리 내고 실천해야 할 일순위가 기후정의와 환경보호 운동이라고 생각된다.

매년 매달 역대급 기후 기록을 뒤엎고, 새로운 기록이 갱신되고 있는 작금 무엇이 가장 시급한 일일까?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의 위기로 다가왔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그럴듯한 물질과 자본의 세상도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가 얼마나 낭비되었으며,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를 부르는 온실가스는 오죽 많았겠는가? 매일 같이 대량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갈 곳 없어 우리의 숨통을 옥죄어 오고 있다. 논밭과 산, 강과 바다, 습지를 끝없이 개발하며 칼끝의 꿀을 빨고 있는 형세다. 편리한 인터넷 쇼핑, 택배회사, 해외관광과 여행, 자동차 대중화 등은 모두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와 연동해 기후위기를 촉진한다.

> **오는 9월 7일 세계 곳곳서 기후정의 위한 행진**
> **현재 부처님 나투시면 기후약자와 함께 할 것**
> **타종교 비해 관심 부족… 불교 참여 확대 기대**

기후위기는 당신과 나의 위기이다. 그간 누렸던 편리함의 대가가 우리 자신의 존재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기후변화로 폭염, 폭우, 가뭄, 혹한 등이 심화하면서 세계 농작물 수확량에 영향을 끼쳐 '밥상 물가 폭탄'을 맞게 되고 서민들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식재료의 가격 폭등을 통해서 기후가 재난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듯하다.

특히 현대인의 필수 기호식품 격인 커피 원두 가격은 동남아 지역의 가뭄 여파로 연일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브라질의 가뭄과 한파로 인한 커피농사의 흉작이 한국에서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을 올려놓는다. 커피뿐만 아니라 밀가루, 오렌지, 올리브 등은 최근 수확량이 줄면서 연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서민경제활동에서 식재료 물가 때문에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폭염 등을 체감하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커지고 있다. 8월 중순 낮 최고 기온이 아직 30도를 웃도는 대한민국에서 9월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기후시민이 함께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인 학생들과 불교인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대거 참여를 고대한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천주교나 원불교의 요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마주할 때면 기죽고 부끄러웠던 기억이다. 올해는 종단의 환경위원회나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꺼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는 집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어찌 편안하게 오늘만을 살려 할 것인가?

홍수, 폭염,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해 지구의 수많은 생명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

'907 기후정의행진'에서는 '성장과 발전'으로 풍요를 거짓 약속하고 있는, 오직 자본의 이윤에 헌신하며 기후재난과 기후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는 세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물질적 성장에서 벗어나자고 말할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를 열자고 외칠 것이다. 불자여, 지금 바로 기후정의를 실천하자!

기자칼럼

원로 어산어장의 안타까운 걱정

8월 12일 서울 가양동 홍원사에서는 경제어산전승보존회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무형문화유산 제43호 보유자 동주 원명 스님의 경제어산수륙재 시연회 개최를 대중에게 알리는 자리였다. 오는 9월 8일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리는 시연회는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 원명 스님의 제자 12명이 스승의 팔순을 맞아 마련한 공연이어서 의미가 더욱 깊었다.

원로 어산어장을 친견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보니 자연스럽게 불교 의식과 의례에 대한 질문들이 오갔다. 동주 원명 스님에게 불교의식 전승의 어려움을 묻자, 스님은 "의식을 배울려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 제대로 전승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가 함께 오다보니 의식을 배우려는 젊은 출가자들이 줄거나 전무해 제대로 의식(소리)이 전승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주 원명 스님은 이 같이 토로했다.

"여러 의식의 과정들을 일일이 몸과 머리로 기억해야 합니다. '짓소리' 경우 단전으로부터 소리가 올라와야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렸을 때 배워야 익힐 수 있는데 배우겠다는 출가자가 나이가 40, 50대가 되어 오니 이미 목소리가 굳어져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죠. 배우겠다는 열의는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배우는 사람도 괴롭고,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동주 원명 스님은 올해 공연과 내년 홍원사에서 설행될 수륙재를 끝으로 불교의식 주관을 회향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에는 "모든 것은 후학에게 맡기겠다"고도 했다. 종교의식은 해당 종교만의 고유한 의미와 기능을 보여주는 행위다. 그렇기에 의식과 의례가 전혀 없는 종교는 있을 수 없다. 불교 역시 부처님에 대한 예경과 가르침을 전하는 데 특유의 의례가 활용돼 왔다.

이 같은 의례를 제대로 잘 전하는 것도 후학들의 몫이다. 이에 대한 종단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외면한 무릎 통증이 탈골·인대파열
수술비보다 걱정 앞선 '가족 생계'

네팔노동자 수딥 씨, 공장일하다 무릎 다쳐
병원비만 1500만원…치료 중단하고 퇴원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